

‘현우경’ 이야기 (34)

부처가 된 찬제파

“여인들을 피어 내려고 홀로 숲에서...”

어느 나라에 가리라는 왕이 살았다. 그 나라에는 찬제파라는 선인이 살았는데 항상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다. 어느 날 왕은 공녀와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왕은 숲 속에서 공녀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공녀와 신하들은 찬제파가 수행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찬제파가 수행하는 모습에 반해 설법을 청해 듣고 싶어 했다. 찬제파는 공녀와 신하들의 부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했다. 그들은 모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찬제파 앞에 모여 그의 얘기를 경청했다.

그때 낮잠을 자다 깬 왕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신하와 공녀들이 모두 찬제파 곁에서 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화가 났다.

“감히 나를 버리고 저런 놈 주변에서 열 쟁대나! 가만있지 않겠다!”

왕은 찬제파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제가 수행을 하던 중 사람들이 몰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진정 수행을 했다면 선정을 얻었는가?”

“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량심은 얻었는가?”

“언지 못했습니다.”

“선정도, 무량심도 얻지 못한 놈이 감히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설법을 하였다는 건가?”

왕은 찬제파에게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여인들을 피어내기 위해 이런 숲 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척 한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수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곳에서 어떤 수행을 했느냐?”

“인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네가 진정 인욕을 수행했다면 내가 너를 시험해 보아도 되겠느냐?”

“그러십시오.”



삼화·장병호

왕은 칼을 들어 그 자리에서 찬제파의 손을 잘랐다.

“감히 내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 욕됨을 참는다고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찬제파는 손이 잘렸음에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왕은 찬제파의 두다리를 또 잘랐다. 찬제파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에는 그의 귀와 코마저 베어버렸다. 그럼에도 찬제파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진동했다. 하늘사람들이 찬제파를 해치려 하는 가리왕의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한 것이다.

“네 이놈! 감히 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찬제파가 하늘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를 위하신다면 왕을 벌하지 마십시오.”

왕이 찬제파에게 말했다.

“어째서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참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제가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 몸에서 흐르는 피는 우유로 변할 것이고, 몸은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찬제파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피는 우유로 변하고 몸은 원래대로 회복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은 깜짝 놀라 말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선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찬제파가 말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수행한다면 그대는 지혜의 왕이 돼, 세 가지의 독을 끊고 후생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리왕은 참회한 후 찬제파와 그의 제자들을 궁으로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가리왕이 찬제파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신하들은 시샘을 했다.

“도대체 뭐하는 자이길래 왕의 은총을 함몰에 받는 것이오?”

그들은 찬제파가 앉은 자리에 흙과 오물을 끼얹으며 그를 궁에서 내쫓으려 했다. 그때 찬제파는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해 부처가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의 탐욕과 더러움을 없애 영원히 청정하게 해주겠다!”

그 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 찬제파는 부처가 됐다. 부처로 다시 태어난 찬제파는 수많은 중생을 만나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했다. 그때 천명의 중생이 출가해, 비구가 되어 아라한도의 도를 얻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36

어느 노파의 깨달음 -

구성-김흥인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               |         |
|--------------|---------------|---------|
| <b>9번 구분</b> | 가 루 자죽염 125g  | 40,000원 |
|              | 가 루 자죽염 230g  | 73,000원 |
|              | 알갱이 자죽염 125g  | 43,000원 |
|              | 알갱이 자죽염 230g  | 78,500원 |
| <b>2번 구분</b>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 18,000원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흥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i.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설법·화술**  
무료 공개강좌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40년 노하우, 우물 김철희 박사 직접 지도 -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 무료공개강좌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4~6시

**설법연수일정**

- ◆ 수시접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2개월 과정)
- ◆ 종합반을 진도식 교육이 아닌 훈련식으로 교육
- ◆ 개인지도 : 환영 (직접 상담 결정)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교명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 02)747-1567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희